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안내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초등부 대성전), 19:00	
			06:30 (새벽)	10:30 (교중)
			10:3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평일	06:30 (새벽)	19:00 (저녁)
	예비자교리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 지역별 성모의 밤

일자	5월13일(목)	5월20일(목)	5월24일(월)
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 저녁 7시부터 묵주기도 후 “도움이신 마리아 대축일” 미사 봉헌합니다.

◎ 차양막 설치

- 5월 15일(토)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차양막 설치로 인해 본당 주차장 이용이 제한됩니다.

◎ 위령봉사회 알림

- 그동안 수고하신 위령봉사회 김영길 바오로 회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위령봉사회 회장님은 추후 임명할 예정입니다.

◎ 알 림

- 유아 세례, 태종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종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다음주(5월 16일) 홍보주일 2차 헌금 있습니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거리두기 2단계 구역별 주일미사 참례 시간

	토요일 19:00	새벽 06:30	교중미사 10:30	주일 낮 12:00	주일저녁 19:00
05/02	21~24, 기타구역	1~5 구역	6~11 구역	12~15 구역	16~20 구역
05/09	1~5 구역	6~11 구역	12~15 구역	16~20 구역	21~24, 기타구역

- 구역 외 신자 분들도 구역별 시간표에 따라 미사에 참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꼭바로 착용합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으시면 가정에서 평화방송으로 미사 참례합니다.
- “X”로 표시한 자리는 비워두고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교 육 / 강 좌

- 예비신자 교리 신청받습니다.
- 주일반, 평일반
- 사무실에서 신청 받습니다.

◎ 서울대교구 거주미상 본당 전출

- 2016년 01월 01일 이전 영세자 중 교무금/판공 성사/병자성사/봉성체 등의 기록이 없으신 신자 분은 서울대교구 거주미상 본당으로 전출될 예정입니다.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및 봉사자 모집 *

- 전액 무료, 저녁 식사제공
- 후원금계좌 : 신한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 다음 주일(05/16)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02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04월28일 ~ 05월04일)

교 무 금	11,465,000원
주일헌금	4,615,000원
성소주일 2차헌금	716,000원
강계화100만원 박인영20만원 임분화10만원	
오훈석150만원 오현석150만원 이인자 3만원	
서영준10만원 김수자10만원 황금옥 3만원	
김미혜 5만원 백송자10만원 하계심10만원	
김영건10만원 김OO 1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복 사		독 서	
05/09	최경희	오성환	도현만	안상록	한희숙
05/16	유명진	심재순	신종구	최웅조	김강자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일	06:30	10:30		12:00	19:00
05/09	이운영	최석준	최상남	최승일	김영배	최창열
05/16	장인홍	최승일	최창열	황태영	박승환	김인기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분쟁과 두려움

25. 전쟁, 테러 인종적 종교적 박해, 그리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많은 침해는 본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으로서 특정 이해관계에 적합한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한 권력자에게 편리할 때는 참이던 것이 그의 이득과 무관해지면 더 이상 참이 아닙니다. 슬프게도 이 폭력적 상황은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너무 흔히 벌어져서 이른바 ‘산발적 제3차 세계 대전’이라고 불릴 만한 양상”을 보입니다.

26.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지평이 결여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이는 놀랄 일도 아닙니다. 모든 전쟁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인류 가족의 사명으로 새겨진 형제애”입니다. “모든 위협적인 상황은 불신을 키우고, 자기만의 안전한 곳을 찾아 움츠러들도록 부추깁니다.” 이처럼 우리의 세계는 기이한 모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신감으로 지탱되는 거짓 안보에 기초한 안정과 평화의 보장”이 가능하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27. 역설적이게도 기술 발전이 극복하지 못한 오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두려움은 신기술 뒤에 숨어 강해지는 법을 알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고대 도시의 성벽 뒤로는 심연, 미지의 땅, 사막이 존재합니다. 그곳에서 오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알려지지 않고 친숙하지 않으며 마을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방어해야 하는 ‘야만인’의 영토입니다. 그 결과 자기방어의 새로운 장벽이 생겨서,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나의’ 세상만 존재할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 더 이상 여겨지지 않고 그저 ‘그들’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장벽의 문화를 만들고 벽을 높이고 싶은 유혹, 곧 다른 문화와 다른 민족과의 만남을 막고자 마음속에도 땅 위에도 벽을 세우고 싶은 유혹”이 재등장합니다. “벽을 높이 쌓는 사람들은 아무 지평도 없이 자신이 세운 바로 그 벽 안에 갇힌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타자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28. 체계의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는 많은 이들의 고독, 두려움, 불안은 마피아를 위한 비옥한 땅을 만듭니다. 마피아들은 범죄 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흔히 갖가지 도움을 통하여 잊힌 이들의 ‘보호자’로 자처하면서 승승장구합니다. 전형적인 마피아 교육법이 있습니다. 그릇된 공동체 정신으로, 풀려나기 어려운 의존과 종속의 유대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